

寶成禪院 三尊佛의 腹藏典籍 研究

A Study on the bibli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relics inside of Buddhist triad Samantabhadra in the Boseong Temple

송 일 기(II-Gie Song)*

〈 목 차 〉

- | | |
|---------------------|-----------------|
| 1. 緒言 | 4. 三尊佛 腹藏典籍의 特性 |
| 2. 三尊佛의 腹藏典籍 現況 | 5. 結言 |
| 3. 腹藏本 新出資料의 書誌的 檢討 | |

초 록

이 연구는 보성선원의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석가불·문수상·보현상 등 삼존불에서 수습된 복장전적에 대해 서지학적 측면에서 분석한 글이다. 보성선원의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삼존불은 1647년 이전에 경상도 거창의 見巖寺에서 조성되어 현재의 보성선원으로 이관된 불상이다. 삼존불 중 석가불에서 37책이, 문수상과 보현상에서는 각각 18책이 수습되어 전체 13종 73책에 달하는 복장전적이 수습되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에는 새로운 3종(화엄경, 금강경, 천태사교의집해)의 불교전적은 처음으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보성선원의 복장본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전체 13종 73책 중 경전류가 6종 65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이 중에는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간행된 5계통의 법화경 46책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판본은 불상이 조성된 이전에 주로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에서 개관된 사실을 분석하였다.

키워드: 보성선원, 삼존불, 복장본, 화엄경, 금강경, 천태사교의집해, 법화경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bibli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relics settled from the inside of Buddhist triad – Buddha, Bodhisattva, and Samantabhadra – which is located in the main building of Boseong Temple. This Buddhist triad was made in Gyongnam Temple in Geo Chang, Gyongsang-do before 1647 and transferred to Boseong Temple. It is revealed that this Buddhist triad has 13 kinds, 73 volumes altogether including 37 volumes from Buddha and 18 volumes from Bodhisattva and Samantabhadra each. Of these books, three kinds are founded for the first time. Also, by analyzing the features of these sacred books, it is confirmed that most of the books, 6 kinds 65 volumes, are the Sutras. Especially, this study focuses on the fact that there are 5 kinds, 46 volumes in these Sutras which were published by Korea itself. Analysis shows that these publications were revised mostly in Jeolla-do and Gyeongsang-do before the Buddhist triad was made.

Keywords: Boseong Temple, Samantabhadra, Buddhist triad Buddha Book, Jangsu-gyeong, Beobhwa-gyeong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gsong@cau.ac.kr)

• 접수일: 2012년 11월 25일 • 최초심사일: 2012년 11월 28일 • 최종심사일: 2012년 12월 26일

1. 緒言

지난 2010년 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보성선원의 대웅전에 봉안된 석가·문수·보현으로 구성된 三尊佛의 불복에서 불상 조성에 관련된 의식구를 비롯하여 불상 조성기와 전적류 등 많은 복장유물이 수습된 바 있다. 삼존불을 봉안하고 있는 보성선원(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1동 1952-1)은 조계종 사찰이나 창건 시기는 일제시기로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며, 사격 또한 대웅전과 요사채만 있을 뿐 그다지 크지 않은 규모로 주택가에 소재하는 사찰이다. 보성선원의 창건주는 寶性堂 普慧 선사인데, 그는 백양사 방장을 지낸 西翁 대종사를 은사로 득도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삼존불은 보성선원의 창건 시기보다 앞선 시기에 조성된 불상이기 때문에 어느 곳으로부터 移運해 온 것이 분명하다. 삼존불은 불복에서 함께 수습된 조성기에 따르면, 본래 경상도 거창현 동면의 牛頭山에 소재하는 見岩寺에서 1645년에서 1647년 사이에 玄旭 비구 등에 의해서 造成된 것으로 밝혀 있다.¹⁾ 이러한 사실로 보아 보성선원의 삼존불은 한국전쟁 이후 거창의 견암사로부터 이전해 온 불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거창의 견암사는 조선전기에 三和寺와 觀音窟과 함께 국행수륙재를 시행했던 사찰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찰이었다. 이 견암사는 한국전쟁 동안 폐사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 해방 전후 시기에 이 곳 보성선원으로 옮겨 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거창의 견암사로부터 보성선원으로 이관된 삼존불은 조성 이후 몇 차례 重修되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다만 지난 2010년에 開腹하기 이전에 한차례 改金한 사실이 전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현재 수습한 복장유물의 규모와 복장전적의 간행시기로 보아, 보성선원으로 이전해 오기 이전에는 중수 사실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는 현재의 복장유물에서 重修記가 발견되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조성 이후로 추가 납입한 전적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삼존불의 복장유물은 대체로 복장 조성에 관한 기록과 복장 관련 의식공양구를 비롯하여 불복의 充填을 위하여 납입한 典籍類로 구성되어 있다. 불상의 도상적 특징과 의식 관련 복장유물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의 조사자에 의해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²⁾

1) 造成記의 연호가 '順治2年丁亥'로 연호와 간지가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임영애 교수는 조사보고서에서 이에 대해 "1645년에 현욱(玄旭)과 나흠(懶欽)이 제작한 아미타삼존불좌상이 상주 남장사에 현존한다. 현욱과 나흠이 한 해에 두 곳의 삼존상, 그것도 경상북도 상주와 경상남도 거창을 오가며 동시에 불상을 조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1645년 남장사 불상 조성 당시에는 현욱의 이름이 세 번째로 등장하지만, 견암사 삼존불좌상에서는 수화승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사실은 남장사 삼존상보다 견암사 삼존상이 나중에 조성되었음을 알려준다. 그리고 조선시대 통상적으로 연호보다는 干支에 더욱 익숙하였다는 점을 상기하면 연호가 아닌 간지를 따라 정해년인 1647년이 삼존불좌상의 제작연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고 밝히고 있다.

2) 문명대, "대구 보성선원 봉안 見岩寺 玄旭派 釋迦三尊佛像의 도상특징과 腹藏 연구," 강좌미술사, 제35호(2010. 12), pp.390-423.

따라서 필자는 이 글에서 복장전적만을 대상으로 먼저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간기가 없는 불서는 하나하나 필자의 조사파일과 비교하여 그 해당 전적의 開板된 시기를 밝히고자 한다. 다음으로 현재까지 소개되지 않은 유일본 불서에 대해 서지학적으로 검토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고자 한다. 끝으로 복장전적의 전체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주제 분석을 실시하고, 특히 대표적 복장전적으로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고 있는 법화경에 대해서는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三尊佛의 腹藏典籍 現況

지난 2010년 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보성선원의 대웅전에 봉안된 삼존불의 불복에서 불상 조성에 관련된 의식구를 비롯하여 조성기와 전적류 등 많은 복장유물이 수습된 바 있다. 이 삼존불은 임난 직후 1647년 이전에 見巖寺에서 조성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는 보성선원으로 이관되어 있는 불상이다. 이 가운데 이 글의 분석대상으로 삼은 불교전적은 모두 73책에 이르고 있는데, 전체적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 三尊佛의 腹藏典籍 現況

佛像		釋迦佛	文殊像	普賢像	合計
板種	木板本	35책	17책	18책	70책
	活字本	1책	·	·	1책
	筆寫本	1책	1책	·	2책
소계		37책	18책	18책	73책
비율		50.6%	24.7%	24.7%	100%

위의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석가불에서는 모두 37책이, 문수상과 보현상에서는 각각 18책이 수습되어 전체 73책이 이른다. 불상의 규모가 문수상과 보현상은 동일하나, 석가불이 대략 10cm 정도 坐高가 크고 넓은 편이다. 이러한 이유로 석가불에서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37책의 전적이 수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전체 73책 중 석가불에는 활자본 1책과 필사본 1책이 포함되어 있고, 문수불에는 필사본 1책이 수습된 것으로 보아, 이 3책을 제외한 나머지 70책은 목판본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73책의 복장전적에 대한 상세한 형태적 특징과 현상은 다음에서 살펴보았다.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3권 제4호)

2.1 釋迦本尊佛像의 腹藏典籍

보성선원의 대웅전의 중앙에는 삼존불이 봉안되어 있다. 석가불은 삼존불 가운데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37책에 이르는 복장전적이 수습되었다. 다음은 석가불에서 수습된 복장전적의 서지적 특징과 개개의 現狀을 조사하여 표로 작성한 것이다.

〈표 2〉 석가불의 복장전적 현황

書名	板種	數量	刊行處	板刻年	現狀	備考
金剛般若波羅密經 卷上, 下	목판본	2책	身安寺	[1537]	表紙缺落	丁丑字本覆刻 한글墨書
金剛般若波羅密經 諺解	목판본	1책	無量寺	[1565]	表紙缺落	刊經都監本覆刻
金剛般若波羅密經 諺解	필사본	1책	미상	[16C]	表紙缺落	唯一本, 釋譜詳節 併記, 趙介福 施財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卷1-2,4,5,6	목판본	4책	能仁庵	1611	表紙缺落	乙亥字本覆刻
大佛頂…首楞嚴經 諺解 卷5	활자본	1책	校書館	[1461]	表紙缺落	乙亥字本 張36 以後缺
蒙山和尚六道普說	목판본	1책	慈悲嶺寺	1490	表紙缺落	欄外墨書/한글口訣
蒙山和尚六道普說	목판본	1책	大光寺	1509	表紙缺落	欄外墨書/한글口訣
妙法蓮華經 卷2-3	목판본	1책	無量寺	[1493]	表紙缺落	初鑄甲寅字本系
妙法蓮華經 卷1	목판본	2책	松廣寺	1615	表紙缺落	初鑄甲寅字本系
妙法蓮華經 卷3-4	목판본	1책	王室	[1470]	表紙缺落	大字本(原刊本)
妙法蓮華經 卷5-7	목판본	1책	廣興寺	[1527]	表紙缺落	大字本系
妙法蓮華經 卷2, 3-4, 5-7	목판본	3책	公山本寺	[1531]	表紙缺落	乙亥字本系/嘉靖 13(1534)年 墨書
妙法蓮華經 卷4,5,6,7	목판본	8책	公山本寺	[1531]	表紙缺落	乙亥字本系
妙法蓮華經 卷4	목판본	2책	公山本寺	[1531]	表紙缺落	乙亥字本系
妙法蓮華經 卷2-3	목판본	1책	佛國寺	1570	表紙缺落	花岩寺本系
佛祖三經	목판본	1책	屏風庵	1479	表紙缺落	高麗本翻刻
禪家龜鑑	목판본	1책	미상	[1583]	表紙缺落	跋文 合綴·禪教釋(1586)
禮念彌陀道場懺法 卷2-3	목판본	1책	海印寺	[1503]	表紙缺落	王室發願本覆刻
六經合部	목판본	1책	永濟庵	1440	表紙缺落	原刊本/2經存
六經合部	목판본	1책	君子寺	1445	表紙缺落	淸源寺 海悟刊
六經合部	목판본	1책	花岩寺	1488	表紙缺落	跋文缺落
天台四教儀集解 卷下	목판본	1책	刊經都監	1464	表紙缺落	唯一本 造成記/趙瑾書

위의 〈표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석가불에서 수습한 복장전적에는 木板本 35책과 活字本 및 筆寫本 각 1책이 포함되어 있어 모두 37책으로 조사되었다. 판본을 기준으로 전체 22종으로 조사

되었으며, 이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전적이 刊記가 없어 정확한 刊行處를 알 수 없는 상태이다. 그리하여 필자의 佛典書目과 佛典資料集를 근거로 밝혀진 복장전적은 []로 표시하였다. 필자가 새로 밝힌 자료 중 주목되는 전적은 1565년에 鴻山의 無量寺에서 개관한 금강경 언해본이다. 이 언해본은 1464년에 刊經都監에서 간행한 판본을 저본으로 복각한 목판본으로 학계에는 소개된 적이 없으며, 또한 여타 기관에는 소장 사실이 없고 다만 개인이 1부만 소장하고 있는 것을 정도로 매우 희귀한 자료이다. 그 외에 1461년에 을해대증소자와 한글활자로 인출된 능엄경언해본 권5가 포함되어 있으며, 貞熹王后 발원으로 1470년 왕실 주관으로 간행된 大字本 法華經이 보이고 있다. 대자본법화경은 紙質이나 먹색으로 보아 初刷本이 분명하며 이와 동일한 판본이 이미 여러 점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간기가 온전한 전적 중 1445년에 함양의 君子寺에서 개관한 <六經合部>는 그 전본이 거의 없는 매우 희귀한 판본이다. 한편 유일본으로는 白紙에 墨書한 <금강경언해>와 간경도감에서 조성한 <天台四教儀集解>로 파악되었는데, 처음으로 소개되는 자료로 다음 장에서 검토할 것이다. 복장본의 특성상 모든 전적은 앞뒤의 표지를 제거한 상태로 납입되어 있다.

2.2 文殊菩薩像의 腹藏典籍

보성선원의 대응전의 중앙에는 삼존불이 봉안되어 있다. 文殊像은 중앙의 석가불을 기준으로 좌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18책에 이르는 복장전적이 수습되었다. 다음은 문수상에서 수습된 복장전적의 서지적 특징과 개개의 現狀을 조사하여 표로 작성한 것이다.

<표 3> 문수상의 복장전적 현황

書名	板種	數量	刊行處	板刻年	現狀	備考
金剛般若波羅密經 卷下	목판본	1책	廣興寺	[1530]	表紙缺落	丁丑字本覆刻
大方廣佛華嚴經 周本 卷58	필사본	1책	미상	[14C]	卷首缺落	白紙墨書寫經 現存唯一寫經
大方廣佛華嚴經疏 卷1-2	목판본	1책	松廣寺	[1635]	表紙缺落	刊字 弘彦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卷2	목판본	1책	能仁庵	[1611]	表紙缺落	張2-40 存
妙法蓮華經 卷4-7	목판본	1책	安心寺	1405	表紙缺落	原刊本
妙法蓮華經 卷1-2	목판본	1책	長佛寺	[1420]	表紙缺落	省琚書
妙法蓮華經 卷1-2	목판본	1책	大慈庵	[1424]	表紙缺落	墨書口訣
妙法蓮華經 卷3-4	목판본	1책	桐華寺	[1436]	表紙缺落	安心寺本系/寺印
妙法蓮華經 卷4	목판본	1책	桐華寺	[1436]	表紙缺落	安心寺本系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3권 제4호)

妙法蓮華經 卷1-2	목판본	1책	喜方寺	[1561]	表紙缺落	花岩寺本系 變相圖
妙法蓮華經 卷5-7	목판본	1책	興福寺	[1586]	表紙缺落	花岩寺本系
妙法蓮華經 卷5-7, 6-7	목판본	2책	能仁庵	1604	表紙缺落	花岩寺本系
妙法蓮華經 卷3, 5-7	목판본	2책	能仁庵	1604	表紙缺落	花岩寺本系
妙法蓮華經 卷3, 5	목판본	2책	公山本寺	[1531]	表紙缺落	乙亥字本系
人天眼目	목판본	1책	檜巖寺	1395	表紙缺落	李穡, 無學 跋

위의 <표 3>에 보이는 바와 같이 문수상에서는 목판본 17책과 필사본 1책 등 모두 18책이 수습되었다. 판본의 종수는 모두 15종인데, 이 중 간기가 없는 판본이 11종에 이르고 있다. 간기가 없는 판본은 필자의 조사를 바탕으로 []로 밝혀 놓았다. 刊記가 온전한 판본 중 주목할 만한 전적은 1395년에 경기도 檜巖寺에서 無學 대사의 주관으로 원나라에서 姜金剛의 시재로 간행한 판본을 저본으로 복각한 <人天眼目>이다. 또한 1405년에 전라도 고산 安心寺에서 成達生의 筆書本을 바탕으로 판각한 법화경을 들 수 있다. 이 2종의 불서는 이미 여러 점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밖에도 비록 간기는 없으나 1420년 長佛寺本, 1424년 大慈庵本, 1436년 桐華寺本 <法華經>은 그 전본이 매우 희귀한 판본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부는 이미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白紙에 周本 권58을 寫經한 <華嚴經> 1권이 보이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와 유사한 사경이 발견된 사례가 없는 유일본으로 보인다.

2.3 普賢菩薩像의 腹藏典籍

보성선원의 대웅전의 중앙에는 삼존불이 봉안되어 있다. 普賢像은 중앙의 석가불을 기준으로 우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18책에 이르는 복장전적이 수습되었다. 다음은 보현상에서 수습된 복장전적의 서지적 특징과 개개의 現狀을 조사하여 표로 작성한 것이다.

<표 4> 보현상의 복장전적 현황

書名	板種	數量	刊行處	板刻年	現狀	備考
金剛般若波羅密經 卷上	목판본	1책	廣興寺	[1530]	表紙缺落	丁丑字本 覆刻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卷3, 6	목판본	2책	能仁庵	1611	表紙缺落	乙亥字本 覆刻
妙法蓮華經 卷1-3	목판본	1책	安心寺	[1405]	表紙缺落	原刊本/墨書口訣

妙法蓮華經 卷1-3	목판본	1책	文殊寺	[1417]	表紙缺落	安心寺本系
妙法蓮華經 卷1-3	목판본	1책	大慈庵	[1424]	表紙缺落	安心寺本系
妙法蓮華經 卷6-7	목판본	1책	桐華寺	1436	表紙缺落	安心寺本系 李順蒙書寫, 隱夫跋
妙法蓮華經 卷4-7	목판본	2책	花岩寺	1443	表紙缺落	原刊本/成達生跋
妙法蓮華經 卷1-3, 4-7	목판본	2책	花岩寺	[1477]	表紙缺落	花岩寺本系
妙法蓮華經 卷4-7	목판본	1책	花岩寺	1477	表紙缺落	花岩寺本系
妙法蓮華經 卷1	목판본	1책	歸進寺	[1554]	表紙缺落	花岩寺本系
妙法蓮華經 卷3-4	목판본	1책	靑龍寺	[1574]	表紙缺落	花岩寺本系
妙法蓮華經 卷5-7	목판본	1책	미상	[16C]	表紙缺落	花岩寺本系
妙法蓮華經 卷2,6	목판본	2책	公山本寺	[1531]	表紙缺落	乙亥字本系
六經合部	목판본	1책	花岩寺	1488	表紙缺落	幹善 了問 跋

위의 <표 4>에 보이는 바와 같이 보현상에서는 목판본만 18책이 수습되었다. 판본의 종수는 모두 14종인데, 이 중 유간기본이 5종이며 간기가 없는 판본이 9종에 이르고 있다. 간기가 없는 판본은 필자의 조사 결과를 []로 밝혀 놓았다. 먼저 刊記가 온전한 판본 중 주목할 만한 전적은 1436년에 경상도 桐華寺에서 孝寧大君의 발원으로 비구 信心과 義一이 주관하여 隱夫선사의 발문을 받아 李順蒙이 書寫한 판하본을 개관한 판본과 또한 1443년에 전라도 고산 花岩寺에서 成達生의 筆書本을 바탕으로 刊刻한 <法華經> 판본이 있으며, 동일 사찰에서 1477년에 개관 간행한 판본도 있다. 그리고 동일 사찰인 화암사에서 1488년 了問의 주관으로 개관한 <六經合部>가 있다. 이 중 동화사본과 화암사본 2종의 법화경은 이미 여러 점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밖에도 비록 간기는 없으나 주목할 만한 <法華經> 판본으로는 1405년에 간행된 安心寺本, 1417년의 文殊寺本, 1424년의 大慈庵本 등은 그 전본이 매우 희귀한 판본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판본 또한 이미 여러 점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3. 腹藏本 新出資料의 書誌的 檢討

3.1 白紙墨書本 <周本華嚴經 卷58>

화엄경은 우리나라에서 불교 강원의 교과로 학습해 온 경전 중에 하나이며, 완전한 이름은 '大方

廣佛華嚴經’이며, 이를 줄여서 ‘華嚴經’이라 부른다. 화엄경은 불타의 깨달음의 내용을 그대로 나타낸 경전으로 毘盧遮那佛을 주불로 삼고 있다. 화엄경은 인도에서 결집과정을 거쳐 성립된 대승 불교 중요한 경전으로, 이 경전이 중국에 전래되어 번역된 漢譯本은 번역시기에 따라 晉本·周本·貞元本으로 부르며, 이를 三本華嚴이라 총칭한다.

이 가운데 보성선원 문수상에서 발견된 화엄경은 80권으로 번역된 주본에 해당된다. 주본 화엄경은 695년에 낙양에 온 實叉難陀(652-710)가 당나라 측천무후 연간(695-699)에 새로 34품으로 한역한 대승경전이다. 그런데 이 시기는 則天武后에 의해서 당나라가 20여 년 동안 일시 周나라로 이름 하였던 시기로 이때 번역된 화엄경을 ‘周本’ 또는 ‘周譯’으로 부르고 있으며, 또한 화엄경을 새로 번역하였다는 의미에서 ‘新譯’이라 하고 권수가 80권에 해당되어 ‘80화엄’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 80화엄은 내용상으로도 가장 완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 번역되어 그 내용과 문체 또한 매우 상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화엄경은 삼분이 유통되었던 까닭에 신라시대로부터 고려시대에 판각되었거나 쓰여진 사경의 현존본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다. 현존하는 판본 중에는 신라하대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진본 화엄경 권20과 권33이 근래 학계에 소개되었다.³⁾ 그리고 사경으로는 신라 755년에 寫成되어 삼성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新羅白紙墨書寫經>이 가장 최고의 사경으로 알려져 있으며, 근래 개운사 아미타불에서 발견된 백지묵서본 또한 신라사경으로 추정되고 있다.⁴⁾ 그리고 고려시대 사성된 사경은 대부분 감지나 상지에 금물이나 은물로 제작된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 글에서 소개하는 보성선원의 문수상에서 발견된 화엄경사경은 주본 권58에 해당하는 권자본 1권으로, 백지에 먹물로 쓴 ‘白紙墨書寫經’인데 세부적 서지사항은 아래와 같다.

白紙墨書本 <周本華嚴經 卷58>의 書誌記述

표제	大方廣佛華嚴經, 卷58 / 實叉難陀(唐) 漢譯.
관종	筆寫本(白紙墨書寫經)
발행	[미상 : 미상, 고려말-조선초]
형태	1軸 ; 27.8×563.2cm.
판식	上下單邊, 高 22.1cm, 有界, 23-25行17字, 無魚尾
기타	1장길이: 약51.2cm

일반적으로 고려사경은 대체로 紺紙나 椴紙에 금물이나 은물로 쓴 사경을 卷子나 摺裝으로 裝潢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고려사경은 대부분 한국과 일본에 남아 있는데, 이 중 현존하는 고려시대 화엄경 사경의 전체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3) 宋日基, “開運寺本 晉本 華嚴經 卷33의 書誌的 研究,” 書誌學研究, 제51집(2012. 6), pp.359-385.
 4) 송일기, “開運寺 阿彌陀佛 腹藏本 <華嚴經> 研究,” 書誌學研究, 제47집(2010. 12), pp.46-48.

<丑 5> 高麗時代 華嚴經寫經 傳存 現況

譯本	卷次	年代	裝潢	材質	材料	所藏處	所在地	備考
晉本 (9점)	卷12	14c	摺裝	紺紙	銀泥	三星美術館	한국 서울	
	卷12	14c	摺裝	椴紙	金泥	根津美術館	日本 東京	
	卷13	1329	卷子	紺紙	銀泥	湖林博物館	한국 서울	보물1103호
	卷25	14c	摺裝	椴紙	銀泥	祇林寺	한국 경북	보물959호
	卷28,29	1336	摺裝	紺紙	銀泥	아모레미술관	한국 용인	보물1559호 福祥寺舊藏
	卷38	1336	摺裝	紺紙	銀泥	아모레미술관	한국 용인	"
	卷49	1329	卷子	紺紙	銀泥	大成庵	한국 경남	경남390호
	卷59	14c	卷子	紺紙	金泥	徳川美術館	日本 愛知	
	卷4	14c	摺裝	椴紙	銀泥	化粧博物館	한국 서울	보물1665호
周本 (39점)	卷4	14c	摺裝	紺紙	金泥	徳川美術館	日本 愛知	
	卷5	14c	摺裝	紺紙	金泥	知恩院	日本 京都	
	卷5,6	14c	摺裝	紺紙	銀泥	湖林博物館	한국 서울	보물755호
	卷6	1336	摺裝	紺紙	銀泥	福祥寺	日本 神戶	
	卷7	14c	摺裝	紺紙	銀泥	根津美術館	日本 東京	
	卷8	14c	卷子	紺紙	金泥	加藤春夫	日本 北海	
	卷12	1324	摺裝	紺紙	銀泥	東國大博物館	한국 서울	
	卷15	1334	卷子	紺紙	金泥	化粧博物館	한국 서울	보물1412호
	卷15	14c	卷子	紺紙	金泥	三星美術館	한국 서울	
	卷16	1324	摺裝	紺紙	銀泥	東國大博物館	한국 서울	
	卷21	1338	摺裝	椴紙	銀泥	國立博物館	한국 서울	
	卷24,53,56,60	1336	摺裝	紺紙	銀泥	아모레미술관	한국 용인	보물1559호 福祥寺舊藏
	卷25	14c	摺裝	紺紙	銀泥	京都博物館	日本 京都	
	卷27	14c	摺裝	紺紙	銀泥	國立博物館	한국 서울	
	卷29	15c	摺裝	白紙	金泥	우학문화재단	한국 서울	보물978호
	卷35,36	14c	摺裝	紺紙	金泥	大和文華館	日本 奈良	
	卷37	14c	摺裝	紺紙	金泥	湖林博物館	한국 서울	보물754호
	卷40	1324	摺裝	紺紙	銀泥	東國大博物館	한국 서울	
	卷41	1324	摺裝	紺紙	銀泥	東國大博物館	한국 서울	
	卷43	14c	摺裝	紺紙	銀泥	개인	한국 서울	
	卷46	14c	卷子	紺紙	金泥	通度寺	한국 경남	보물757호
	卷46	14c	摺裝	紺紙	金泥	通度寺	한국 경남	
	卷47	14c	摺裝	紺紙	銀泥	國立博物館	한국 서울	
	卷48	14c	卷子	紺紙	銀泥	鳳林寺	한국 경기	보물1095호
	卷55	14c	摺裝	白紙	金泥	藏書閣	한국 경기	
	卷62	14c	摺裝	紺紙	銀泥	藏書閣	한국 경기	
	卷67,68	1393	摺裝	白紙	墨	京都博物館	日本 京都	
	卷68	14c	摺裝	白紙	墨	知恩院	日本 京都	
	卷71-73	1291	摺裝	紺紙	銀泥	京都博物館	日本 京都	
	卷78	14c	摺裝	紺紙	金泥	大和文華館	日本 京都	

10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3권 제4호)

貞元本 (8점)	卷4	14c	摺裝	椽紙	銀泥	國立博物館	한국 서울	보물1137호
	卷8	14c	卷子	白紙	墨	湖林博物館	한국 서울	
	卷17	14c	卷子	紺紙	銀泥	東國大博物館	한국 서울	
	卷31	1337	卷子	紺紙	墨	三星美物館	한국 서울	국보215호
	卷34	1337	卷子	紺紙	銀泥	湖林博物館	한국 서울	보물751호
	卷34	1334	摺裝	紺紙	銀泥	湖林博物館	한국 서울	보물752호
	卷37	14c	卷子	紺紙	銀泥	湖林博物館	한국 서울	
	卷40	14c	摺裝	紺紙	金泥	東國大博物館	한국 서울	
未詳本 (6점)	卷3	14c	摺裝	紺紙	金泥	月精寺	한국 강원	
	卷?	14c	摺裝	紺紙	金泥	國立博物館	한국 서울	
	卷11	14c	摺裝	白紙	金泥	國立博物館	한국 서울	
	卷17	14c	摺裝	紺紙	銀泥	東國大博物館	한국 서울	
	卷13	14c	摺裝	紺紙	金泥	湖林博物館	한국 서울	
	卷1	14c	摺裝	紺紙	金泥	大和文華館	日本 奈良	

위의 <표 5>에 보이는 바와 같이 현존하는 고려 화엄경 사경은 모두 62점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에 전래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사경은 보물 1095호로 일괄 지정된 鳳林寺 복장전적에 들어 있는 주본 권48인데, 卷首題와 寫經書體가 고려사경과는 전혀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⁵⁾

그러나 보성선원본은 권자본으로 백지에 주본 권58을 묵서한 사경이다. 위 표에 보이는 바와 같이 이 사경과 동일한 조건을 갖고 있는 사경은 현재 없다. 그래서 이와 가장 유사한 특징을 지닌 사경을 찾아보기 위해, 먼저 장정이 권자본은 전체 62점 중에 13점이며, 재질이 백지본은 5점, 그리고 사경의 재료가 묵즙(墨汁)인 경우는 3점에 불과하였다. 비록 주본은 아니지만 장정·재질·재료가 동일한 사경은 호림박물관에 소장된 정원본 권8이 유일하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호림미술관에서 개최한 초조대장경 특별전에 처음 공개된 자료에 정원본 권8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사경이 아니라 목판본이다. 혹시 이 판본이 사경체자로 쓰여져 있어 기존에 목록작성자가 이를 사경으로 오해한 것은 아닌가 한다. 이 자료는 卷首題에 역자인 ‘般若’ 삼장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經題에는 ‘華’자가 아닌 ‘花’자로 되어 있으며, 각 장은 26행17자로 구성되어 있어 신라시대 사찰에서 간행된 寺刊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⁶⁾

5) 지정보고서에는 이 사경의 寫成시기를 고려말기로 추정하고 있으나, 卷首題 형식이나 사경 서체로 보아 이 보다 이른 시기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추후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動產文化財指定報告書: 1991指定篇, 서울: 문화부 문화재관리국, 1992, p.168).

6) 이 자료는 서지적 특징으로 보아 개운사 복장본에 들어 있는 정원본 권20과 동일본으로 판단된다. 다만 도록의 사진 해설에 ‘大方廣佛華嚴經疏’로 기재되어 혼란을 주고 있으니 수정이 필요하다.(천년의 기다림 초조대장경, 서울: 성보문화재단, 2011, pp.192-193).



(사진 1) 白紙墨書本 <周本華嚴經 卷58>

이러한 사실로 보아 보성선원본은 장정의 형태가 권자본이면서, 재질과 재료가 白紙에 墨書한 사경으로, 그 특징이 현존하는 고려사경과는 매우 다른 유일한 사경으로 판단된다. 이 자료의 권수 일부가 탈락되어 권수제의 특징 등 구체적 정보를 알 수 없어 寫成 시기를 확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경의 제작 시기나 학술적 가치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3.2 白紙墨書本 <금강경언해>

금강경은 벼락을 자르는 무궁한 지혜로써 그 근본을 삼고 ‘一切法無我’의 사상을 담고 있는 대승경전의 일종이다. 이러한 금강경의 핵심사상은 우리에게 집착 없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수행의 완성을 이루어 석가가 행한 보시의 정신을 구현하여 일체의 악업을 소멸하는 구체방법을 표방하고 있어, 동아시아에서는 한역 이후 일찍부터 사문의 학습과 공덕 불경으로 널리 유행하였다. 금강경의 한역본은 412년에 요진의鳩摩羅什이 번역한 것 외에 6종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구마라집의 한역본이 가장 많이 유포되어 있다.

백제와 밀접하게 교류한 중국 남조의 양나라(502-557)에서는 금강경을 널리 유포하고 황실에서는 講經法會를 수시로 개최하였다. 또한 양나라의 昭明太子는 금강경 전문을 32分으로 分章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금강경은 일반적으로 소명태자의 분장 형식을 따르고 있다. 그 당시 백제는 武寧王 이후 남조의 양나라와 밀접한 교류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까닭에, 금강경은 일찍이 백제에 전래 유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그 후 금강경이 백제시대에 金紙·銅紙에 사성되어 帝釋精舍의 목탑 및 王宮塔에 법사리의 용도로 시납되었던 사례가 보이고 있다.⁷⁾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고려대장경에 수록된 것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간행된 판본류

7) 宋日基, “益山 王宮塔 出土 <百濟金紙角筆 金剛寫經>의 研究,” 馬韓·百濟文化, 제16집(2004. 12), pp.147-183.

를 살펴보면, 대부분 구마라집의 한역본을 저본으로 사찰과 왕실에서 간행한 목판본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현재 해인사 사간판전에 보존되어 있는 1214년에 판각된 群生寺本을 비롯하여 무신정권의 지원으로 1237년과 1245년에 판각된 목판이 남아 있고, 1305년에 청주 元興社 간본이 청주고인쇄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리고 소형본으로 鳳林寺 복장본 2종(1228, 1311年刻)이 화성 용주사에 소장되어 있으며, 관판본으로는 1357년에 판각된 전주본과 1363년에 남원에서 판화가 수록된 판본을 개판하였다. 주해본으로 1387년에 川老解本이 개성의 金沙寺에서 간행된 바 있는데, 이 천로해본은 조선시대에 1410년 고창 文殊寺에서 복각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근래 1426년에 천로해 고려본에 鄭震의 주해를 추가하여 경상도 無主庵에서 간행된 새로운 주해본이 발견되어 주목되고 있다.⁸⁾

조선시대 유통된 금강경 판본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경향은 五家の註解가 수록되어 있는 五家解本의 편찬과 간행에 있다. 五家解는 중국의 양나라 雙林大士 傅翁의 贊, 唐나라 六祖大鑿禪師 慧能의 口訣, 宋나라 治父(아보) 道川의 挾頌(着語), 당나라 圭峯宗密禪師의 纂要, 송나라 豫章宗鏡禪師의 提綱 등이 撰述된 바 있으나, 중국에서 이를 한 책으로 집성한 판본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초기 태종15(1415)년에 前安嚴寺 住持인 省居 등이 판각 간행한 板本(보물 1082호)에서 오가해가 수록되어 있으나, 서명 상에 五家解라는 표기가 없고 후미에 涵虛堂 己和의 〈決疑〉가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서명 상에 ‘五家解’가 들어 있는 판본은 1442년에 陽山寺에서 간행된 책이다. 더욱이 이 판본은 ‘得通堂 己和⁹⁾ 述’이란 저자 표시가 있고 여기에 得通 己和의 〈說誼〉가 수록되어 있어 앞서 1415년에 간행된 省居書本의 교정본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¹⁰⁾ 이러한 편찬 과정을 거쳐 오가해의 편성은 1457(세조3)년에 완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로 그해 세조의 하명으로 丁丑大字와 甲寅中·小字로 印出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이 活字本을 저본으로 전국의 사찰에서 15회 이상 복각 간행되어 널리 유포되었다.

조선시대 간인된 금강경 중 가장 중요한 판본은 바로 언해본이다. 언해본은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 이후 한문불경 등을 국역한 것으로 한국불교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이다. 이는 중국이 인도와 서역 등지에서 전래된 불경을 한문으로 번역하여 보급한 이후 중국불교가 크게 번창한 사례와

8) 주해자 鄭震은 고려본 권말의 발문을 쓴 인물로 川老解에 주해를 추가한 판본이 1426년에 경상도 無主庵에서 開板된 유일본이 현재 국내에 전하고 있다.
9) 함허당의 法名를 흔히 ‘己和’로 부르고 있는데, 이 책의 저자표시에는 ‘己和’로 되어 있어 ‘이화’로 독음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 한다. 현재 이 책이 유일하게 함허당의 법명이 권수제에 새겨진 목판본이기 때문이다. 또한 목판본 함허당의 行狀에 ‘師諱己和’로 되어 있어 더욱 입증된다 하겠다.
10) 卷末題가 卷首題 ‘金剛經五家解說誼’와는 달리 ‘五家解說義通證’로 되어 있는데, 이로 보아 권말제는 권수제를 축약하면서 동시에 이 책의 성격을 은연중에 밝힌 ‘通證’이란 용어를 添記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이미 고익진 교수가 밝힌 바와 같이 省居本에서 丁丑字本으로 가는 校正本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高翊晉, “涵虛의 金剛經五家解說誼考,” 佛教學報, 제11집(1974), pp.174-175.

비교할 만한 공헌이었다. 비록 그 수량과 파급효과가 중국의 역경사업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한 수준이나, 사부 대중이 우리의 문자로 번역된 불경을 접한다는 그 자체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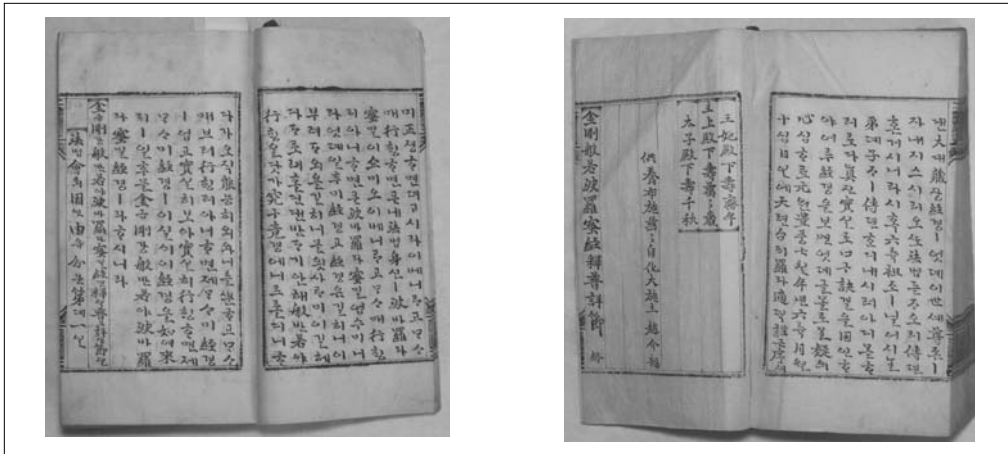
금강경의 언해는 세조와 성종에 걸쳐 두 번의 한글 번역작업이 있었다. 먼저 세조는 본인이 직접 정문에 口訣을 달고 韓繼禧 등이 육조의 解義를 國譯하여 조선 1464(세조10)년에 刊經都監에서 판각 간행한 목판본으로 그 初刊本이 근래 영광 불갑사에서 발견되었다.¹¹⁾ 이 책은 1457년에 丁丑字本〈金剛經五家解〉가 편찬 간행된 이후, 이를 저본으로 1462(세조8)년에 먼저 正文과 六祖의 解義만을 재판하고 신속하게 국역하여 1464년에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五家解〉중 冶父의 頌과 宗鏡의 提綱을 正文에 반영하고, 그리고 여기에 己和의 說誼를 부가하여 국역하고 1482(성종13)년에 丁丑大字, 乙亥中·小字와 한글 활자로 간인한〈金剛經三家解〉 언해본이 완성됨으로써 세종의 유명을 이루게 되었다. 이와 같이 금강경의 언해 편찬사업은 세종 본인은 물론 문종, 세조, 성종에 이르는 4대왕에 걸쳐서 비로소 완성을 보게 된 내력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금강경 언해본은 바로 오가해본 가운데 일부 주해만을 번역하여 전후 2차에 걸쳐 간행한 것이다. 그밖에도 刊經都監本을 복각한 無量寺本(1565년)과 이를 번각한 安心寺本(1575년) 외에 위 2종의 원간본과는 전혀 다른 계통의 언해본과 한글본이 20세기 초기에 袖珍本 등을 포함하여 3-4종이 간행된 바 있다.

그러나 보성선원의 석가불에서 수습된 금강경 언해본은 앞에 언급한 목판본 또는 활자본과 전혀 다른 筆寫本이라는 점이 특이하다. 이 보성선원본은 목판에 사주의 匡郭과 판심부에 상하에 大黑口와 黑魚尾를 새겨 白紙에 인출한 후 邊欄의 안쪽과 板心에 붓으로 가는 墨線을 긋고, 그 안에 금강경의 正文과 六祖의 解義만을 필사한 일종의 한글사경으로 보인다. 이 책은 전후의 표지가 탈거된 상태로 수습되었는데, 본래 五針으로 裝潢하기 위해 穿孔해 놓은 상태가 선명하며, 또한 장황을 위해 이전 단계에 內綴한 紙芯도 선명하게 보이고 있다.

권수에는〈육조대사해서〉와, 권말에는 송나라 羅適이 1084(元豐7)년에 지은〈육조대사구결후서〉가 수록되어 있는데, 본문과 동일한 필체로 쓰여 있다. 그리고 후서 다음 장에 발원문이 보이고 있는데, 그 내용은 主上和 王妃殿下, 그리고 太子殿下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願文이다. 이 발원문에 이어 1행을 비우고 '供養布施兼自化大施主 趙介福'이란 시주 이름이 보이고 있다. 이 시주기를 통해 '趙介福'이란 檀越의 施財로 이 사경이 조성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시주자 조개복의 생존연대를 추적함으로써 대략적인 필사시기를 추정할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11) 송일기 편저, 靈光 佛甲寺의 佛敎文獻(서울 : 태학사, 2005).



(사진 2) 白紙墨書本 <금강경언해>

그런데 특기할 만 사실은 권수제 및 권말제의 기재방식에 있는데, 이러한 서명방식은 아직까지 보지 못한 사례이다. 먼저 권수의 <六祖解序> 앞쪽 1행에 ‘金金剛강般若아波비羅리蜜밀經경釋석普보詳상節절’이란 경명이 보이고, 이어 2행에 ‘月월印인千천江강之지曲곡’이 國漢文으로 병기되어 있다. 아울러 권수제 또한 ‘金金剛강般若아波비羅리蜜밀經경釋석普보詳상節절’로 국한문으로 병기되어 있으나, 권말제는 ‘金剛般若波羅密經釋譜詳節’로 한문으로 기재되어 있어 의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은 세종이 한글을 창제하고 처음으로 한글을 사용한 문헌이다. 이는 금강경의 언해가 세종의 유명이라는 사실로 보아 은연중에 ‘月印’과 ‘釋譜’와의 관련성을 보이고 있는 듯하나, 이러한 기재방식이 어떠한 의미에서 이와 같이 서명을 連記했는지는 알 수 없다. 이 책의 상세한 서지적 특징은 아래와 같다.

白紙墨書本 <금강경언해>의 書誌記述

표제	금강반야바라밀경석보상절=金剛般若波羅密經釋普詳節 / 鳩摩羅什(姚秦) 奉詔譯
판종	筆寫本
발행	[미상 : 趙介福, 16세기]
형태	1卷1冊 ; 25.0×14.5cm.
판식	四周雙邊, 半郭 17.2×11.0cm, 無界, 半葉 8行17字, 黑口, 內向黑魚尾
서문	六祖大師口訣後序…元豐七(1084)年六月十日天台羅適謹序
목서	供養布施兼自化大施主 趙介福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한사람에 의해서 필사된 듯 동일한 서체로 쓰여 있다. 육조의 서문에 이어 정문이 시작되는데, 경명 다음 행에 <법회인유분제일> 章題가 기재되어 있고, 행을

달리하여 경문이 시작한다. 경문에 이어 육조의 주해문은 1행의 공격을 두고 국한혼용으로 필사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이 책은 양나라 소명대자가 32분으로 分章하고 육조의 解義가 수록된 註解本을 저본으로 국어로 번역한 언해본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과연 이 책은 어떤 언해본을 저본으로 필사한 것인가. 아니면 별도로 누군가에 의해 새로 번역하여 필사한 것인가. 먼저 조선전기에 간행된 금강경 언해본은 세조 때 간경도감본과 성종 때 정축자본 등 2종이 현존하는 내력은 위에서 밝혔다. 이 중 정축자본은 <三家解>를 수록하고 있어 보성선원본과는 그 체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저본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그렇다면 나머지 간경도감본을 저본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간경도감본과 비교해 보면 전체 내용을 그대로 전제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간경도감본 중 세조가 正文에 口訣한 부분과 육조의 解義에 현토한 부분을 제외하고 '○'표시 아래의 한계회 등이 언문으로 번역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필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글에 傍點이 탈락된 것과 표기상에도 변화가 보이고 있다. 예컨대, '如'는 '△+ㄱ'에서 '여', '是'는 '쌍'에서 '시', '定'은 '땡'에서 '땡', '我'는 'ㅇ+ㅇ'에서 '아' 등으로 단순하게 표기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간경도감본을 필사의 저본으로 삼았으나, 전사 과정에서 방점을 탈락 시키고 표기를 단순하게 변화시킨 모습이 보인다.

따라서 이 금강경 백지묵서사경은 보성선원의 삼존불이 늦어도 1647년에 조성되었으며, 복장전적 가운데 임난 이후 가장 늦은 시기에 간행된 불서로 1635년에 송광사에서 개판된 <華嚴經疏> 1책 등 불과 7책만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으로 보아 임난 이전에 필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서명에 '月印'과 '釋譜'를 병기하여 은연 중 세종대와 가까운 시기에 필사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으며, 묵서한 종이의 특성이 가로로 굵은 발문이 조선전기 간경도감본 등 세조연간에 간행된 불서의 지질에 보이는 특징과 흡사한 점으로 보아, 이 사경의 필사시기를 잠정적으로 임난 이전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3.3 刊經都監本 <天台四教儀集解>

조선시대 단종을 폐위하고 왕위에 등극한 왕이 세조이다. 세조는 재위기간 동안 왕위등극 과정에 서 피살된 인사들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왕궁에 임시로 간경도감을 설치하여 국역 불서와 章疏類를 간행토록 하였다. 그리하여 이 도감에서 주관하여 대각국사 의천이 간행한 바 있는 教藏類 일부와 다종의 다양한 한문불서와 언해불서를 尙州와 光州 등 여러 지방에 분담하여 번각하거나 새로 판각하여 간행하였다. 현재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전적은 국역불서가 10종에 이르며, 한문불서가 35종이 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²⁾

12) 간경도감본은 전해봉에 의해 모두 33종이 소개되었으며, (千惠鳳, 韓國典籍印刷史, 서울 : 범우사, 1990), pp. 140-150) 필자에 의해 지난 2004년에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에서 새로 12종이 새로 발굴되었는데, 이 중 송광사본 9종과 보림사본 1종은 처음으로 소개된 자료이다. (송일기, 松廣寺佛書展示圖錄, 서울 : 태학사, 2004), pp.29-79, 102-107). 그

이처럼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전적은 모두 45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어 더 이상 새로운 판본의 출현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런데 보성선원 석가불에서 刊經都監의 刊記가 있는 <天台四教儀集解>가 새로 발굴되어 주목되고 있다. 이 책은 주지한 바와 같이 고려 초기 諦觀이 천태종의 핵심 사상을 집약하여 편찬한 <四教儀>에 永嘉沙門 從義가 集解한 章疏類의 일종으로 보인다. 이 <四教儀>는 천태종의 중심사상인 ‘諸法實相 一念三千’의 심오하고 광대한 교학사상의 요지를 표현할 목적으로 찬술되었다. 이 책은 천태학의 골자와 요지를 教와 觀의 2門으로 파악하고 2문의 대강을 정리한 것으로 고려시대 祈福都監에서 1315년에 간행한 판본이 남아 있다.¹³⁾

그런데 이 <四教儀>는 찬자 체관이 중국에서 죽은 이후 그 곳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다는 오히려 중국에서 교학 승려에 의해 널리 학습되었다.¹⁴⁾ 뿐만 아니라 이 책이 일본에 전래된 이후 수많은 교학자들에 의해 주석과 해설이 담긴 주해서가 무렵 200여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방대한 주해서 가운데 從義가 집해한 3권본, 元粹가 備釋한 2권본, 그리고 蒙濶이 集註한 10권본이 가장 심오하여 이른바 ‘三大註釋書’로 평가 받고 있다.¹⁵⁾

그러나 集解本을 제외하고 備釋本과 集註本은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판본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다지 참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판본은 대부분 일본과 중국에서 간행된 판본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현재 국내에는 삼대주석서 가운데 從義의 집해본만이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간인된 판본이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從義의 집해본은 주로 智顓의 『法華玄義』를 중심으로 原意를 충실하게 해석하여 ‘法華開顯’을 발현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래서 세조는 이러한 의미에서 從義 집해본을 간행하여 널리 보급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내에서 간인된 판본은 종래에 알려진 乙亥字本 1종과 을해자본의 覆刻本(西臺寺, 1554刊) 1종, 그리고 이 글에서 소개하는 간경도감본 1종뿐이다.

보성선원의 석가불에서 수습된 집해본은 바로 간경도감에서 목판으로 간행한 목판본에 해당된다. 이 책은 卷下의 1책으로, 전후의 표지가 탈거된 상태로 발견되어 전권이 상·하의 2권본인지 혹은 상·중·하의 3권본인지 알 수 없다. 다만 이 보다 앞서 을해자로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속활자본이 고려대, 국립도서관, 계명대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대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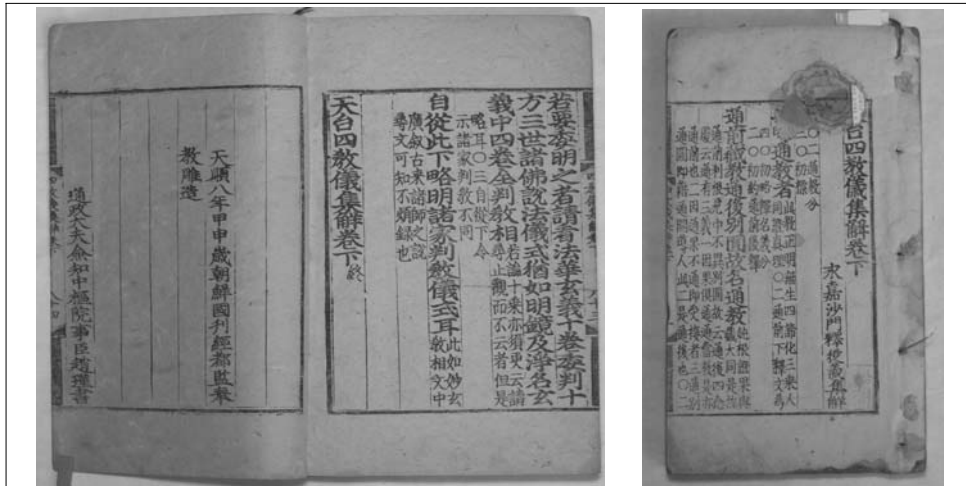
리고 근래 송광사 관음전의 관음보살상에서 <華嚴經合論>(卷73-75) 일부가 수습되어 보물로 일괄 지정된 바 있는데, 板刻地가 종래 알려지지 않은 光州牧에서 雕造되었다.

13) 이 祈福都監本의 牧庵 발문에 의하면, 이전에도 大字本이 존재한 사실이 밝혀져 있다. 그런데 지정보고서에 延祐2년의 서기 환산 연도를 1355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니 독자의 주의를 요한다.(動產文化財指定報告書: 1990指定篇, 서울 : 문화부 문화재관리국, 1991. p.244).

14) 金煥泰, 韓國佛敎古典名著의 世界(서울 : 민족사, 1994), p.179.

15) 池昌圭, “天台四教儀 集解·備釋·集註의 法華解釋,” 韓國佛敎學, 第37輯(2004), pp.2-5 참고.

은 상중하 3권(1책), 국도본은 상하 2권(2책), 계대본은 중하 2권(1책)이 현전하고 있다. 이로보아 을해자본은 상중하 3권본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저본으로 새로 재판하여 판각 간행한 간경도감본 또한 3권본으로 판단된다.



(사진 3) 刊經都監本 <天台四教儀集解>

그리고 표지가 탈거된 상태여서 3책본 인지 혹은 1책본 인지 정확한 책수를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을해자 현존본인 고대본과 계대본은 1책본이며, 국도본은 2책본으로 판단이 곤란한 실정이나, 표지가 탈거된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표지를 5침으로 粧冊하기 이전에 內綴한 종이 끈의 심지가 2곳에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보아 보성선원본은 본래 3권을 3책으로 만들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문수보살상과 보현보살상에서 수습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중 권하의 1책만이 遺傳하는 것이다. 이 책의 상세한 서지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刊經都監本 <天台四教儀集解>의 書誌記述

표제	天台四教儀集解, 卷下 / 諦觀(高麗) 錄; 從義(宋) 集解.
판중	木板本(刊經都監本)
발행	漢城: 刊經都監, 天順 8(1464)
형태	1卷1冊; 29.5×17.5cm.
판식	四周雙邊, 半郭 20.5×14.0cm, 有界, 半葉 8行17字 註雙行, 黑口, 內向黑魚尾
판제	四教儀集解
간기	天順8年甲申(1464) 歲朝鮮國刊經都監奉教雕造
서자	通政大夫僉知中樞院事趙瑾 書

일반적으로 간경도감본은 조선시대 刊印本 중 가장 전형적인 형태적 특징을 지닌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이 책의 형태적 특징을 보면, 변란은 사주쌍변으로 반곽의 크기는 20.5×14.0cm이며, 행자수는 반엽을 기준으로 8행 17자이다. 중앙의 접은 부분에 보이는 판심은 상하에 대흑구가 있고, 그 아래에 흑어미가 서로 내향하고 있으며, 상어미 아래에 '四教儀集解'라는 板心題와 卷·張次가 기재되어 있다. 인쇄된 자체는 조선전기에 품미했던 송설체의 유려한 모습 보다는 둔중하고 기골이 있는 안진경의 筆意가 느껴진다. 권말에 첨지중추원사를 지낸 趙瑾이 淨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書寫者를 확인할 수 있다. 書者 조근은 趙末生의 셋째아들로 세종20(1438)년에 문과에 입격한 후 출사하여 성종6(1475)년에 사망한 인물이다. 그는 문종1(1451)년에 서장관으로 강희맹과 함께 명나라를 다녀왔고, 1456년에는 成石璘의 문집 獨谷集을 간행하는데 판각용 淨書本을 쓴 이력으로 보아 조선전기 명필가 중 한사람으로 楷書에 능통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책 권하의 말미에는 '天順8(1464)年甲申歲 朝鮮國刊經都監奉教雕造'라는 간행기록이 보이고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이 책은 세조10(1464)년에 왕명으로 간경도감에서 목판에 판각하여 간행한 불교전적임을 알 수 있다. 종이는 세조연간에 불경을 인쇄하는데 주로 사용한 전형적인 印經紙로 보이며, 특히 벗짚이 혼용된 藁精紙가 많이 보이고 있다. 비록 이 책은 3권본 중 권하 1책만 발견되어 유감스러우나, 간경도감본 1종을 새로 추가하였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4. 三尊佛 腹藏典籍의 特性

4.1 복장전적의 주제 분석

보성선원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삼존불에서 수습된 복장전적은 13종 73책에 이르고 있다. 복장전적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를 주제 분류를 시도한 결과 다음의 표와 같다.

〈표 6〉 보성선원 복장전적의 주제적 특성

구분	書名	종수		책수	
		수량	비율	수량	비율
經典類	金剛般若波羅密經	6종	46.1%	65책	89.0%
	妙法蓮華經				
	大方廣佛華嚴經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大佛頂如來…首楞嚴經				
	六經合部				

註疏類	大方廣佛華嚴經疏	2종	15.4%	2책	2.8%
	天台四教儀集解				
宗義類	蒙山和尚六道普說	4종	30.8%	5책	6.8%
	佛祖三經				
	禪家龜鑑				
	人天眼目				
禮懺類	禮念彌陀道場懺法 卷2-3	1종	7.7%	1책	1.4%
4류		13종	100%	73책	100%

주제 분류를 실시한 결과 경전류, 주석류, 종의류, 예참류 등 4류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經典類에는 금강경을 비롯하여 법화경, 화엄경, 원각경, 능엄경 등 6종에 65책이 들어 있어 종수와 수량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宗義類는 4종에 5책이 해당되고 있는데, 비록 종수는 많은 책의 수량은 5책으로 그다지 많은 비중을 차지 않고 있다. 이는 종의류에 해당하는 불서가 경전류처럼 방대한 분량이 아니고 모두 단권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밖에 註釋類는 2종에 2책이며, 禮懺類는 〈禮念彌陀道場懺法〉 1종 1책에 불과하다.

이러한 주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보성선원 복장전적은 대부분 금강경·법화경·화엄경의 대표적 대승경전이며, 또한 원각경과 능엄경의 대표적 밀교경전이 포함되어 있는 불교경전에 해당된다. 이 65책의 경전류 중에도 법화경은 46책을 차지하고 있어 복장전적 중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불교에서 공덕을 기원하는 대표적 불교경전임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현상으로 보인다.

4.2 법화경 판본의 특징 분석

4.2.1 법화경 판본의 현황

보성선원에서 수습한 복장전적에는 법화경이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법화경이 한국불교에서 강원의 교재와 더불어 불복장의 대표적 공덕경전으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까닭에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에 개판된 판본이 160여종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¹⁶⁾

법화경은 법화사상의 핵심 경전으로 한국 불교계의 근본경전의 하나로서 불교전문강원의 수의과(隨意科) 과목으로 채택되어 강의되어 오고 있으며, 화엄경과 함께 한국불교 사상의 확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경전이다. 이 경은 예로부터 모든 경전들 중의 경전으로 인정받았고, 초기 대

16) 정왕근, 朝鮮時代 〈妙法蓮華經〉의 板本 研究(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2. 8), pp.15-29.

승경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불경으로 화엄경·금강경과 더불어 불교의 대표적 대승경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법화경 한역본으로는 3종이 남아 있는데, 그 중 우리나라에서는 406년에 후진의 구마라집(鳩摩羅什)에 의해서 번역된 한역본이 가장 널리 유통되고 있다.

그리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판본 또한 대부분 구마라집역본을 저본으로 재판하여 다양한 형태와 수단으로 간행되었다. 목판본으로 간행된 가장 오래된 법화경 판본은 근래 전라남도 영광의 불갑사 명부전의 시왕상에서 권3 일부가 발견되었는데, 고려대장경 및 그 이후에 간행된 고려본과는 권수제의 특징이 상이한 점으로 보아 초조대장경 간행 이전 시기인 고려 초기의 판본으로 추정되고 있다.¹⁷⁾ 그밖에 대표적 초기 고려본은 성암본과 연대본이 있으며, 이들 판본에는 각필(角筆)부호가 발견되어 주목되고 있다. 고려 중기 이후에 간행된 판본은 계환(戒環)의 주해가 들어 있는 송나라 판본계통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으며, 아울러 후대의 편리를 도모한 소자본(小字本)도 일부 등장하고 있다.¹⁸⁾ 특히 조선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우리나라의 독자적 판본이 다수 출현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대략 160여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들 판본의 계통은 참여주체나 간행수단에 따라 성달생정서본계·왕실발원본계·초주갑인자본계·올해자본계·대자본계·간경도감본계로 그 계열을 구분할 수 있다.

이처럼 법화경은 다양한 형태의 판본이 존재하고 있는데, 보성선원 삼존불에서는 1405년에 안심사에서 개판된 판본을 비롯하여 모두 46책에 이르는 많은 법화경 판본이 수습되었다. 보성선원에서 수습된 복장본 법화경을 계통별 판본 특징으로 구분하여 정리해 보면 <표 7>과 같다.

<표 7>에 보이는 바와 같이 보성선원 복장본 중 법화경은 모두 조선시대에 開板된 목판본으로 조사되었다. 조선시대 간행된 법화경 판본은 宋元本을 복각하여 간행한 고려시대와 달리 우리나라에서 獨自적으로 淨書本을 마련하여 개판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판에 주체적으로 참여한 인물 또는 간행수단에 따라 그 계통을 크게 5계통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보성선원 복장본은 5계통의 판본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러한 대표적 사례로는 1405년에 成達生이 중심이 되어 정서본을 마련하여 전라도 고산 安心寺에서 간행된 판본을 들 수 있는데, 보성선원 복장본에서 전 7권 2책이 발견되었다. 이와 동일한 계통의 판본으로 1417년에 고창 文殊寺에서 개판한 판본(권1-3) 1책과, 1424년에 大慈庵에서 개판한 판본(권1-3) 2책, 그리고 1436년에 대구 桐華寺에서 개판한 판본(권3-7) 3책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板式의 형식은 동일하지만 書寫者가 省厓로 밝혀져 있는 판본으로 1420년에 황해도 은율의 長佛寺에서 개판된 판본(권1-2) 1책이 들어 있다.

17) 宋日基, “靈光 佛甲寺 腹藏本 妙法蓮華經 卷3의 刊年問題,” 書誌學研究, 제48집(2011. 6), pp.83-130.

18) 정왕근, 송일기, “동아시아 小字本 法華經 流通考,” 書誌學報, 제34호(2009. 12), pp.115-149.

<표 7> 법화경 판본의 계통별 현황

계통	書名	板種	數量	開板處	板刻年	佛像
안심사본계 (9책)	妙法蓮華經 卷1-3	목판본	1책	安心寺	[1405]	보현
	妙法蓮華經 卷4-7	목판본	1책	安心寺	1405	문수
	妙法蓮華經 卷1-3	목판본	1책	文殊寺	[1417]	보현
	妙法蓮華經 卷1-2	목판본	1책	長佛寺	[1420]	문수
	妙法蓮華經 卷1-3	목판본	1책	大慈庵	[1424]	보현
	妙法蓮華經 卷1-2	목판본	1책	大慈庵	[1424]	문수
	妙法蓮華經 卷3-4	목판본	1책	桐華寺	[1436]	문수
	妙法蓮華經 卷4	목판본	1책	桐華寺	[1436]	문수
	妙法蓮華經 卷6-7	목판본	1책	桐華寺	1436	보현
화암사본계 (15책)	妙法蓮華經 卷4-7	목판본	2책	花岩寺	1443	보현
	妙法蓮華經 卷1-3, 4-7	목판본	2책	花岩寺	[1477]	보현
	妙法蓮華經 卷4-7	목판본	1책	花岩寺	1477	보현
	妙法蓮華經 卷1	목판본	1책	歸進寺	[1554]	보현
	妙法蓮華經 卷1-2	목판본	1책	喜方寺	[1561]	문수
	妙法蓮華經 卷2-3	목판본	1책	佛國寺	1570	석가
	妙法蓮華經 卷3-4	목판본	1책	靑龍寺	[1574]	보현
	妙法蓮華經 卷5-7	목판본	1책	興福寺	[1586]	문수
	妙法蓮華經 卷5-7, 6-7	목판본	2책	能仁庵	1604	문수
	妙法蓮華經 卷3, 5-7	목판본	2책	能仁庵	1604	문수
妙法蓮華經 卷5-7	목판본	1책	未詳	[16C]	보현	
초주갑인자본계 (3책)	妙法蓮華經 卷2-3	목판본	1책	無量寺	[1493]	석가
	妙法蓮華經 卷1	목판본	2책	松廣寺	1615	석가
을해자본계 (17책)	妙法蓮華經 卷2, 3-4, 5-7	목판본	3책	公山本寺	[1531]	석가
	妙法蓮華經 卷4,5,6,7	목판본	8책	公山本寺	[1531]	석가
	妙法蓮華經 卷4	목판본	2책	公山本寺	[1531]	석가
	妙法蓮華經 卷3, 5	목판본	2책	公山本寺	[1531]	문수
	妙法蓮華經 卷2,6	목판본	2책	公山本寺	[1531]	보현
대자본계 (2책)	妙法蓮華經 卷3-4	목판본	1책	王室	[1470]	석가
	妙法蓮華經 卷5-7	목판본	1책	廣興寺	[1527]	석가

또한 그 후로도 성달생은 또 다시 정서본을 써서 1443년에 안심사 인근에 소재하는 花岩寺에서 개판한 판본(권4-7) 2책이 발견되었다. 이후로 전국의 많은 사찰에서 화암사본을 모본으로 복각에 복각을 거듭하여 법화경 판본의 주요한 계통을 형성하였다. 보성선원 북장본에는 1477년 花岩寺 重刊本 3책을 비롯하여 1554년 歸進寺本 1책, 1561년 喜方寺本 1책, 1570년 佛國寺本 1책, 1574년 靑龍寺本 1책, 1586년 興福寺本 1책, 1604년 能仁庵本 4책과, 간기 미상본 1책 등 모두 8종 15책이 수습되었다.

그리고 조선시대 세종과 세조는 재위 연간에 初鑄甲寅字와 乙亥字로 불리는 금속활자로 간인한 법화경 2종이 간행된 바 있다. 이 2종의 금속활자본이 간인된 이후 이를 저본으로 無量寺와 公山本寺를 비롯하여 전국의 주요 사찰에서 공덕을 목적으로 수차의 복각되어 하나의 계통을 형성하였다.¹⁹⁾ 보성선원 복장본에는 이 계통의 판본으로 1493년 無量寺本 1책(권2-3)과 1615년 松廣寺本 2책(권1)이 발견되었다. 또한 乙亥字本 계통의 판본은 1531년에 영천의 公山本寺에서 개판된 판본 17책이 포함되어 있는데, 단일 판본으로 가장 많은 수량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성종 재위기간인 1470년에 세조의 왕비인 貞熹王后의 발원으로 먼저 승하한 世祖와 睿宗의 극락왕생을 기원할 목적으로 당대 최고의 筆寫者와 刻手를 동원하여 한행에 13자씩 대자로 板下本을 정서하여 개판하였다. 일반적으로 불경은 한 행에 17자를 기준으로 개판한 전통을 보이고 있는데, 대자본은 13자씩 배자하여 매우 늙름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때 판각한 經板은 보관해 두었다가 왕실의 불사가 있을 때 마다 인출하였는데, 전후 6차 이상 後印되어 비교적 많은 전본이 남아 있다. 이후에는 이 판본을 저본으로 전국의 수많은 사찰에서 부모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한 공덕을 목적으로 복각에 복각을 거듭하여 주요한 계통을 형성하였다. 보성선원 腹藏本에는 이와 동일한 原刊本 1책(권3-4)이 발견되었으며, 또한 원간본을 저본으로 1527년에 복각한 廣興寺本 1책(권5-7)이 포함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보성선원의 복장본에는 법화경 46책이 포함되어 있어 단일 불경으로 가장 많은 수량을 보이고 있다. 이 46책을 구분해 본 결과 5계통에 두루 포함되어 있으며, 각 계통별로 개판처 및 수량을 분석해 본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8〉 법화경 판본의 계통별 개판 양상

계 통	안심사본계	화암사본계	초주갑인자계	을해자본계	대자본계	합계
개판처	5처	8처	2처	1처	2처	18처
수 량	9책	15책	3책	17책	2책	46책

위의 표에 보이는 바와 같이 보성선원의 복장본 법화경은 18개 사찰 등에서 개판된 46책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화암사본계통의 판본은 전국의 8개 사찰에서 간행된 15책으로 조사되었으며, 을해자본 계통의 판본은 1개 사찰에서 간행된 17책이 포함되어 있어 각기 개판처와 수량 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4.2.2 법화경 판본의 간행 지역·시기별 특징

보성선원 복장본 법화경의 간행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46책 중 미상본 1책을 제외한 45책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구분해 본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19) 강순애, “조선조 활자본계의 묘법연화경 판본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0권(1999), pp.55-92.

〈표 9〉 법화경 판본의 간행지역별 분포현상

地 域		京畿	忠淸	全羅	慶尙	北韓	합계
開板處	處數	3처	2처	5처	6처	2처	18처
	비율	16.7%	11.1%	27.8%	33.3%	11.1%	100%
數 量	冊數	3책	2책	11책	27책	2책	45책
	비율	6.7%	4.4%	24.5%	60.0%	4.4%	100%

보성선원 삼존불 佛腹에서 수습된 법화경은 모두 18개 사찰에서 개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18개 사찰을 지역별로 분류해 본 결과, 경상지역은 6개 사찰에서 개관되어 전체 3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량 면에서도 27책으로 전체 60%를 차지하고 있어 여러 사찰에서 간행된 가장 많은 수량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 불상의 조성지역이 경상도 거창이라는 점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나, 아울러 이 지역에서 법화경이 많이 개관되었다는 사실도 함께 생각해 볼 문제이다. 다음으로 전라지역의 여러 사찰에서 간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수량 면에서는 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법화경 46책의 시기별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이를 대상으로 임란 이전과 이후로 개관시기로 구분해 본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0〉 법화경 판본의 간행시기별 분포현상

時 期		壬亂以前		壬亂以後	합계
		15세기	16세기	17세기	
開板處	處數	9처	7처	2처	18처
	비율	50.0%	38.9%	11.1%	100%
數 量	冊數	16책	24책	6책	46책
	비율	34.8%	52.2%	13.0%	100%

보성선원 삼존불 불복에서 수습된 법화경은 모두 18개 사찰에서 개관되어 인출된 46책으로 조사되었다. 개관시기를 중심으로 임란 이전에 개관한 사찰은 전체 18처 중 16처로 88.9%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수량 면에서 살펴보면 전체 46책 중 40책이 임란 이전에 간행되어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란 이후에 간행된 책은 6책에 불과하여 1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런데 임란 이전의 경우에도 비록 개관 사찰수는 15세기가 약간 많은 것으로 보이나, 책의 수량 면에서는 오히려 16세기에 간행된 전적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지역별 및 시기별 간행 현상으로 보아 보성선원 복장본 법화경은 주로 경상과 전라 지역에서 개관된 판본으로 대부분 임란 이전에 간행되었던 전적이 불복에 施納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5. 結 言

이상으로 보성선원의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석가불·문수상·보현상 등 삼존불에서 수습된 복장전적에 대해 서지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성선원의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삼존불은 1647년 이전에 경상도 거창의 見巖寺에서 조성되어 현재의 보성선원으로 이관된 불상으로, 석가불에서 37책이, 문수상과 보현상에서는 각각 18책이 수습되어 전체 13종 73책에 달하는 복장전적이 수습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이 중에는 새로운 3종의 불교전적이 처음으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周本華嚴經 卷58〉은 백지에 묵서하여 권자본으로 裝潢한 白紙墨書寫經本인데, 아직까지 학계에 소개된 바 없는 현존 유일본으로 대략 14세기 무렵에 寫成된 것으로 밝혔다.

셋째, 〈금강경언해〉는 白紙에 墨書하여 線裝으로 粧冊한 일종의 白紙墨書寫經本으로, 이 언해본 간경도감본을 저본으로 音譯을 제외한 諺文으로 번역된 내용만을 발췌하여 16세기 무렵에 필사한 것으로 밝혔다.

넷째, 〈天台四教儀集解〉은 세조 재위 동안 刊經都監에서 간행된 불교문헌 중 처음으로 출현한 전적이다. 이 책은 본래 고려의 체관이 찬술한 천태학에 관한 문헌인데, 사후 중국에서 발견되어 중국의 교학승인 종의에 의해 ‘集解’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섯째, 보성선원의 복장본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전체 13종 73책 중 경전류가 6종 65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이 중에는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간행된 법화경 46책이 포함되어 있다.

여섯째, 이처럼 복장전적 중 법화경이 무려 46책으로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고 있는 바, 대부분 조선전기에 개관된 판본으로 주로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에서 개관된 사실을 분석하였다.

이상은 보성선원의 삼존불에서 수습된 복장전적에 대한 서지학적 조사와 분석을 시도한 결과 밝혀진 내용이다. 이 삼존불에서 수습된 전적류는 모두 73책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에 이다. 지난 80년대 경주 기림사의 비로자나불상에서 수습된 전적이 54건 71책으로 가장 많은 수량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수량 면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기림사 복장전적과 동일하게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 釋門正統. 佛祖統記.
- 강순애 외. 송광사 사천왕상 발굴 자료의 종합적 연구. 서울 : 아세아문화사, 2006.
- 關口眞大. 天台教學の研究. 東京 : 大東出版社. 1978.
- 南權熙. “1302年 阿彌陀佛腹藏 印刷資料에 대한 書誌學的 分析.” 1302年 阿彌陀佛腹藏物의 調査研究. 온양 : 온양민속박물관, 1991.
- 文化財管理局. 動產文化財指定報告書: 1990指定篇. 서울 : 文化財管理局, 1991.
- 송일기. 靈光 佛甲寺의 佛教文獻. 서울 : 태학사, 2005.
- 강순애. “朝鮮朝 活字本系의 妙法蓮華經 板本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0(1999), pp.55-92.
- 강순애. “順天 松廣寺 四天王像의 腹藏典籍考.” 書誌學研究, 32(2004. 6), pp.27-61.
- 강순애. “靈光 佛甲寺 八相殿의 腹藏典籍考.” 書誌學研究, 32(2005. 12), pp.61-105.
- 朴相國. “祇林寺 毘盧舍那佛像 腹藏典籍에 대하여(상,하).” 書誌學報, 1, 2(1990. 6, 9).
- 송일기. “東學寺 大雄殿 三世佛像의 腹藏典籍.” 동학사 대응전 삼세불상. 동학사, 2012. 7, pp.136-157.
- 송일기. “開運寺本 晉本華嚴經 卷33의 書誌의 研究.” 書誌學研究, 51(2012. 06), pp.359-385.
- 송일기. “靈光 佛甲寺 腹藏本 〈妙法蓮華經〉卷3의 刊年 問題.” 書誌學研究, 48(2011. 6), pp.83-130.
- 송일기. “開運寺 阿彌陀佛 腹藏本 〈華嚴經〉 研究.” 書誌學研究, 47(2010. 12), pp.23-56.
- 송일기(외1). “동아시아 小字本 法華經 流通考.” 書誌學報, 제34호(2009. 12), pp.115-149.
- 송일기. “王龍寺院의 三尊佛像의 腹藏典籍에 관한 研究.”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2집, 제2호 (2008. 6), pp.407-409.
- 송일기. “光州 紫雲寺 木造阿彌陀佛坐像의 腹藏典籍考.” 書誌學報, 第28號(2004. 12), pp.79-114.
- 송일기. “靈光 佛甲寺 四天王像 腹藏佛書.” 聖寶 2(2000), pp.73-98.
- 송일기. “高山 花岩寺 刊行佛書의 考察.” 書誌學研究, 제18집(1999. 12), pp.253-283.
- 송일기. “長興 寶林寺 四天王像의 腹藏佛書考.” 伽山學報, 제6호(1997), pp.87-125.
- 千惠鳳. “鳳林寺 木造如來坐像 腹藏典籍.” 書誌學, 7(1981), pp.5-27.
- 송일기. 특별기고 : 사찰, 출판의 보고이자 도서관행의 전초기지. 〈불교신문 33면〉 2010. 5. 22.
- 李永子. “天台四教儀に關する問題.” 印度學佛教學, 35, 1969.
- 정왕근. 朝鮮時代 〈妙法蓮華經〉의 板本 研究.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2. 8.
- 池昌圭. 天台四教儀의 五時八教 研究.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1996.
- 池昌圭. “天台四教儀 集解·備釋·集註의 法華解釋.” 韓國佛教學, 第37輯(2004), pp.1-30.